

승대극회 제39회 가을정기공연

안내놔? , 못내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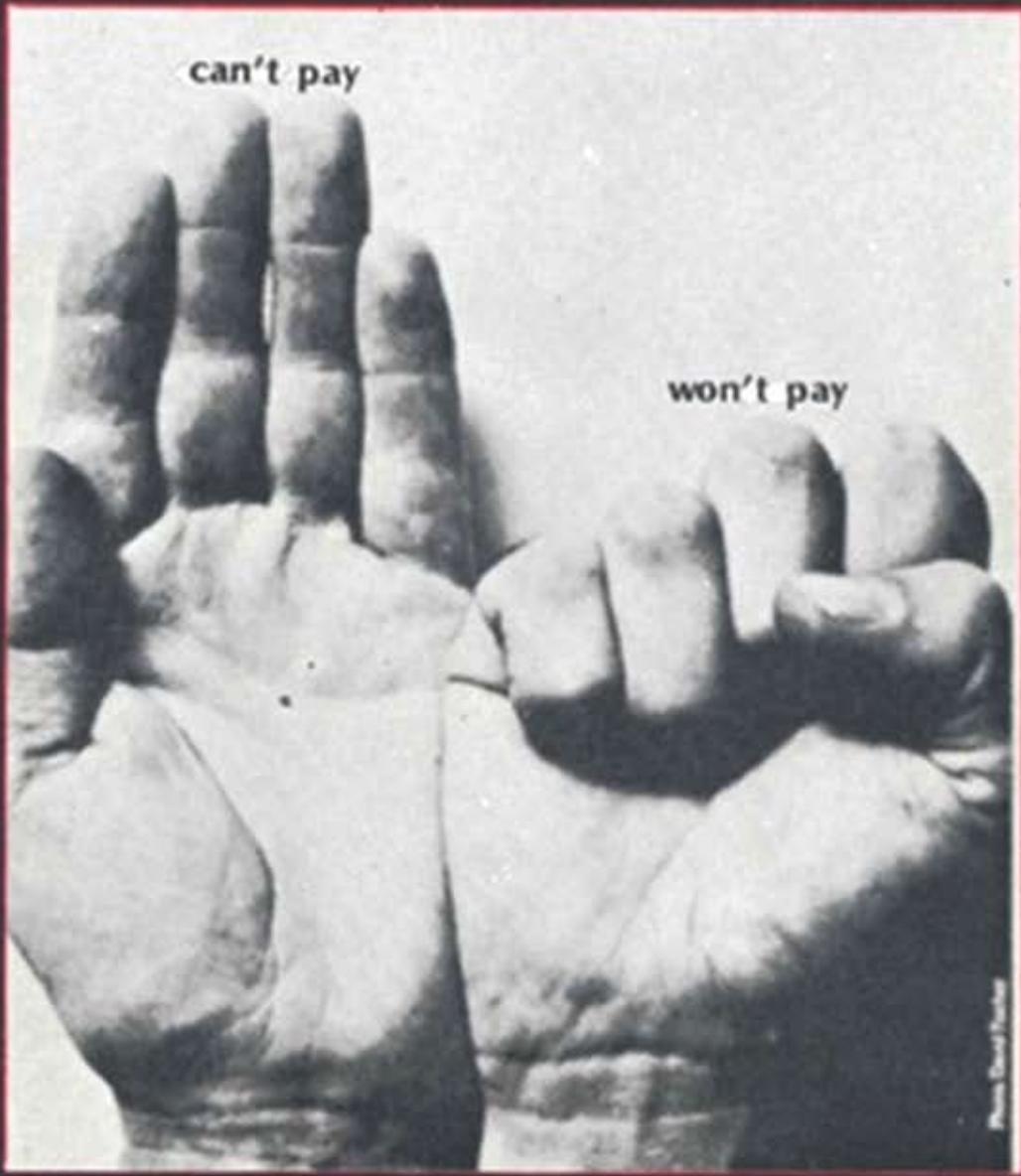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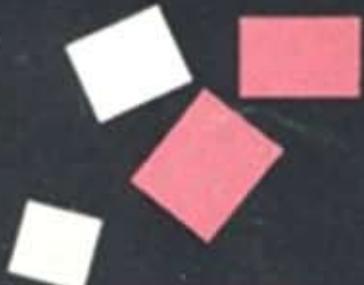


Photo: David Pachin

作 : Dario Fo
기획 : 권태수
연출 : 송근호



격려사



총장 김 치 선

학문과 연극예술 창조에 전념해 온 숭대극회가 제39회 가을 정기공연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다리오포作 “안내봐? 못내봐!”를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일찌기 숭대극회는 순수 연극을 꾸준히 지향하여 왔고, 연극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실재를
묘사하면서도 예술이라는 거대한 창조에 승화시켜 우리가 가진 학문을 표현해 보는 나름대로
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을 공연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서 젊은이의 확고한 신념과 패기로
열연할 극회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오랜 역사에 버금가는 참예술의 경지
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시는 글



극회장 김 진 희(회계2)

지금 시리도록 맑고 푸른 天井 원숙과 총만속에 온 누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적갈색
원숙을 생각하며 오늘 푸른 얼룩으로 가득한 제39회 가을 정기공연 “안내봐 못내봐”로 여러
분을 모십니다.

한 생명이 원숙한 성인이 되기까지는 술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격려가 그 원천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격려와 질타는 저희들이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읍니다.

항상 새로움을 창출하고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고민하는 몸짓들, 그러나 아직은 어
렵고 수줍은 저희들의 몸짓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공연이 있기
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학교측과 여러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기획의 변



기획 권 태 수 (경영2)

(침묵)

여보게 자넨가?

난, 어젯밤 친구네에서 잤네.

그 친구는 무척 연극을 좋아 했지.

하지만, 그 녀석은 연극이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라니…

허허 참!

이거 큰일났네

그럼 자넨 앞으로 어떻게 할려나

모르겠네, 자네가 길 좀 열어 주게

그래 잘 있게나…

아참!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그럼

(침묵)

카 페

승실大정문앞
TEL. 814-9116
CAFE
HOLLOSEOGI

승실인의 느낌을 확인시키는 호프
Restaurant
미네르바
816-3967

작가 및 작품연구

Dario Fo (1926~)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풍자가였으며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곡작품에서 이 이탈리아 예술가는 관객들에게 '기록 광대극'이라 불릴 수 있는 독특한 유모어 양식을 제시한다.

포는 브레히트극의 특징인 새로운 순진성을 확대하여 광대를 창조해 냈고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천진한 질문들은 왜 과잉생산과 깊주립이 공존하는지, 혹은 왜 공장주들은 다른 사람의 노동에서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물었던 마르크스의 순진성을 자주 상기시킨다.

노동연극을 하겠다는 포의 결심은 그의 정치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미국의 베트남 개입에 대한 항의를 포함하여 유럽전역에 일어난 문화·정치적 격변 상황을 점차 인식하게 된 이 풍자가는 자신을 더 이상 '부르조아'의 익살꾼으로 남아 있지 않음을 천명하게 된다. 포의 작품은 브레히트의 그것보다 마르크스주의적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분석했던 산업의 비인간적이고, 상품—이익 중심적인 특징들을 극화시킨다.

여러가지 회극적, 정치적 전통을 끌어들여 이를 자신 고유의 익살과 시사적인 풍자로 새롭게 하는 등 그의 정치 풍자극이 당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쓴 것이기는 하나 단순한 기록이 아닌 사건들의 재구성과 사건의 결과를 자연시키는 것이다.

회극 「안내놔? 못내놔!」 역시 밀라노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들에 근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식료품비를 낼 수 없게 되면 또 다른 극단의 풍요와 비옥의 '황금시대'가 시작되는데, 부인들은 비싼 일용품비에 항의하기 위해 공공연히 식료품을 훔치고 이러한 전리품들을 남편과 경찰관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트 속에 감춘다.

이극의 주요 인물인 안토니아와, 마가릿타는 자신의 불룩 튀어나온 배가 임신때문임을 주장하며 이에 순진한 남편들은 걱정되는 아버지역을 곧 받아들인다.

이러한 억힘속에 포의 고도한 풍자정신이 드러나는데 이는 곧 재산의 재분배, 소비재 문제, 소비자본주의 시대에서 종교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그의 공상적인 풍자에서는 경찰이 무정부주의자로 바뀌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음식물로 바뀌는 등의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그의 유머와 신랄한 풍자가 기지를 발하는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우연한 죽음」, 「부인을 내쫓아라」, 「경적, 트럼펫소리, 욕지거리」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당구의 묘미를 즐기시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태양당구장
TEL. 812-0823
•충전대

베어스캠프
TEL. 816-4371
민주주점
TEL. 815-1956
낭만이
숨쉬는 곳
길마재의 신화
TEL. 812-0823
•충전대

연출의 변



연출
송 근 호 (기계2)

나는 나인데
나보려 내가 아니라 함은
내가 무엇이기 때문인가!

:

나는 나다
나는 너다
우리다

조연출의 변

조연출
박 혜 숙 (국문2)

…비보는 하릴없이 들려왔다.
피로에 지친 낯익은 얼굴하나 가래침 가득한
아스팔트위에 고개를 누인다. 마치 빈거리인냥.
모로 누워 있는 정류장 기둥처럼 서성이며 막차를
기다린다. …… 혼자서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CHINESE RESTAURANT)
연래춘
2F
•충전대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읍니다.
승전대학교 앞
TEL. 812-9108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학사주점
옛촌
•충전대
TEL. 813-6235

CAST

웃음속에 더 진한
그 무엇이...



조반니
손 진 용 (산공2)



안토니아
권 승 혜 (불문1)

우리가 마음대로 살게
놔둘 수 없다면
까짓것 마음에 드는데서
죽을 권리라도...



경사, 경감, 장의사, 노인
이 광 우 (철학2)

국민이 개혁을 바란다면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루이지
박 원 상 (독문1)

자, 내손을 봐, 이 손은
뭔가 내곁 찾으려는
것 뿐이야.

죽음 아니면,
사랑



마가릿타
김 영 (철학1)

STAFF



조연출
박 혜 숙 (국문2)



무대감독
박 경 근 (전자3)



무대장치
김 선 중 (국문4)



분장
류 재 연 (독문4)



진행
김 현 순 (독문3)



음향
홍 희 정 (불문2)



소품
서 현 석 (독문2)



조명
황 명 식 (전기1)



총보
안 성 문

젊은이의 식사처

그린하우스



종합분식 · 신속배달
TEL. 816-5196

중실人의
상도상회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공연연보

回	年 譜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연홍회 소인극 "절세영웅 나풀레옹의 말로" "대비국 노예의 탐"	
	1923년 7 : 7, 21	전현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제인간" 엘랫청년회 주관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	"체증으로 돌아오다" 황영식作 이반기희	전진호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 : 10	"외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聖者와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샤무엘·에케트作	김양기
7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진념록 살화" 윤병조作 "달배해독에 대해서" 안본·채홍작 "황금단지" (로마극) 투라우터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샤무엘·에케트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재 차현재
8	1971년 11 : 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作	차현재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펠터作	한영재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워렌마트作	고봉인
11	1973년 10 : 25, 26, 27	"왕" H. 펠터作 "기도" (소극장) F. 아라벨作	차현재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와 사람들은" (전5막) A. 까워작	정종화
1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봄" W. Arving作 (신입생 환영)	김홍수
13	1975년 6 : 9, 10, 12, 13	"파운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준
14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방학별" Max. Frish作	안홍준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예인"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김득남
15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탈리作	김득남
16	1976년 10 : 25, 26, 27, 28	"뱀" 장·클로드·반·이탈리作	김영덕
3	1977년 3 : 16, 17, 18	"출발" 윤대성作 (신입생 환영)	안홍준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쉐퍼作	김영덕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쉐퍼作	김영덕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김영덕

回	年 譜	作 品 名	演 出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쉐퍼作	김영덕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정재호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이병국
22	1979년 9 : 29, 10 : 2	"초분" 오대석作	황정순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作	박양진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오세환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워렌마트作	황정순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중作	황정순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귀는 달나귀 귀" 김용락作 (신입생 환영)	이용섭
26	1982년 6 : 12, 13	"카리굴라" A. 까워作	지숙
27	1982년 10 : 7, 8	"섀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作	황정순
7	1983년 4 : 16, 17	"블랙코메디" 피터쉐퍼作 (신입생 환영)	홍여석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워렌마트作	김영덕
29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作	오정열
8	1984년 3 : 8, 9	"개인의 소풍간" N. Holland作 (신입생 환영)	김인보
30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오세환
31	1984년 10 : 11, 12, 13	"변전소" John Stoltenberg作	이용섭
32	1985년 5 : 9, 10, 11	"빈민굴" Maxim Gorky	이용섭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하승민
33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노·파레스키作	충기범
10	1986년 3 : 17, 18, 19	"인형의 집" 헨리·입센作	김정은 위성신
34	1986년 6 : 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쉐퍼作	하승민
35	1986년 9 : 11, 12, 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作	충기범
11	1987년 3 : 12, 13, 14	"더러운 손" J. P. 사르트르作 (신입생 환영)	박경근
36	1987년 6 :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오정열
37	1987년 9 : 10, 11, 12	"오해" A. Camus	박경근
12	1988년 3 : 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作	황금실
38	1988년 6 : 2, 3, 4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이아령作	오정열